

기고

선용수 보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이제는 성폭력범죄 예방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최근 연예인들이 연루된 성폭력사건 및 전지발찌 훼손과 같은 성범죄관련 빈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성폭력이란 성폭행(강간), 성추행, 성희롱등 강제적 신체접촉 및 음란성 언어, 통신매체,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고, 날로 계속되는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재 성폭력범죄의 대처방법 및 피해자 지원제도를 모르는 경

우가 많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현실이다.

성폭력사건 발생시 피해여성과 상담해보면 오히려 피해자 자신의 몸가집이 잘못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가족이나 지인들로 부터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과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입게 될 제 2차 피해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이 피해여성 자신이 쉽게 도움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약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선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가능한 24시간 이내로 경찰이나 여성 긴급상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성폭

력을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가거나 경찰을 찾아 성폭행 증거를 확보해야하며, 가해자가 지인이라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차단하기 보다는 캡처나 녹음을 하는 등 개인적인 해결보다는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지자체,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윈스톱 지원센터나 해바라기지원센터 등 성폭력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내·외적 상처치료를 위한 회복지원 및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심리지원 단체를 통한 피해자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무료법률 상담지원과,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최대 5일까지 단기간 숙박비용을 제공

하고 추후 필요하면 장기보호 시설로 연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게 해주는 임시숙소제도 등을 윈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곳에서 상주하는 여경은 비공개 피해자 중심수사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서도 법률지원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병간호비와 돌봄비를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자체를 통하여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성폭력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계획적인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항상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도한 음주나 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이나 어두운 골목길 등을 피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자제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등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社說

불법 주정차 하지 말아야

계도와 호소에도 불법 주정차 문화가 근절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정부가 단속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5년 3만 4145건에서 매년 20% 이상 증가해 2017년에는 5만 149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과 계도에도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및 단속에 관한 행정예고를 내도록 요청했다.

내용은 △전국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구역 불법 주정차 사실이 신고되면 지자체는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위

반 차량 소유주에겐 벌금 8만원이 부과된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전국에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불법 주정차를 1회 이상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불법 주정차를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으로 규정한 이유다. 불법 주정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차된 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보행자 움직임을 알아보기 어렵게 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인지 능력과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호구역 내 감속과 안전운전은 권고가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미세먼지 대응 생활화 해야

기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한 포털 앱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기상개황, 기온과 함께 미세먼지 정보를 보여준다.

미세먼지 수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이 찾는 정보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미세먼지란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 1μm=1,000분의 1mm) 이하의 먼지로 자동차 배출 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배출되기도 하며, 중국의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기도 한다.

입자의 크기가 지름 2.5μm 이하로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들이마셨을 경우 대부분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 깊숙이 침투하여 뇌졸중과 치매, 안구 가려움증, 열증,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고 기침과 천식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황사와 달리 남, 카드뮴 등 중금속과 각종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들어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에는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무서운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실외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시 KF인증 받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외출 후에는 코와 손을 잘 씻고

입었던 옷은 털고 들어오는 것이 좋다.

실외에서 유입되거나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환기 없이 공기청정기만 활용하면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2006년 이후 건설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환기할 때 환기시설을 이용한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법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건건진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의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시설에 사용된 필터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일반 필터로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와 함께 초미세먼지가 걸러낼 수 있는 등급의 헤파 필터인지를 확인하고, 필터의 교환주기(약 6개월)를 넘은 경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터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 봐야한다.

불청객인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출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발씻기 등 생활수작은 습관과 함께 효과적인 실내 공기 관리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안전센터장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仁慈隱惻

仁慈隱惻

▷ 뜻: 아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또는 이를 측은(惻隱)히 여겨야 함.

湖南新聞 (Hubei Daily)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We welcome your opinion)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note that external opinions are not necessarily reflected in the paper.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 our positions?).